

전북 청년 4년간 3만명 이탈 “정책으로 돌파” 전북도, 차기 도금고 선정 돌입

청년 유출 매년 8천명 ‘심각’
일자리·주거 등 5대 집중 지원
활력수당 등 생활밀착형 정책
정책협의체로 청년 체감도 높여

최근 4년 간 전북 청년 3만명 이상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조망하며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청년 인구는 해마다 평균 8천여 명씩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위험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내 지자체는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년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5대 정책 분야



추석 택배 터미널 현장 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관영지사가 지난 19일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에서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 및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면접수당,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며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참여 기회도 마련돼 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고,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책 추진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제8회 청년친화현정대상’에서 광역자

치단체 정책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일자리·주거·역량·참여·정주 여건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도-시군-청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주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청년이 전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지역 기여형 지표’ 평가 첫 반영
2026년부터 4년간 도 재정 관리

〈속보〉전북도는 현행 도금고 약정기간(2022.1.1.~2025.12.31.)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도금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금고 선정은 도민에 대한 도금고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했다.

신규 금고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각종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는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지원 가능하다.

제1금고는 은행법상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상 은행과 함께 지방회계법 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4개를 운용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결정된다.

전북도는 19일 신청 공고로 시작으로 오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11월 중에는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금고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동반자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민 이익과 안정적 재정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축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제출작
건축허브시스템활용 디지털 심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축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는 ICT 기반 내수면 양식 교육·창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설로, 청년 어업인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김제시 백산면에 본관동, 합숙동, 연구실습동, 임대형양식장 등 9,510㎡ 규모 건립되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7월 10일 공고 이후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6개 작품이 접수됐다. 9월 15일 발표심사를 통해 당선작이 결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허브를 활용한 디지털 심사 방식을 도내 최초로 도입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당선작은 대지의 높낮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해 건물을 배치하고 단면을 계획한 점, 공간 간의 연결성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구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사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전북 국회의원 7인과 새만금 조력발전 토론회 주최

정부·부처와 정책 한데 모아 조율
해수유통 확대·조력 발전 논의
“전북 균형발전 도약의 열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운·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명이 공동주최하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의지가 담겼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도 함께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공간에서 조율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에 반영된 뒤 국정과



안호영 의원 제로 확정된 사업이다. 또한 안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조력발전 기본 구상’ 예산을 반영시키는 등으로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의 성과와 조력 확대 가능

성 ▲새만금호의 수질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수질개선, 전북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과 새만금호 관리수위 현실화 전략 등을 주제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각 부처의 실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공급은 물론, 전북에 일자리와 어민 소득, 생태관광까지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전북이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27TH

김제 지역발전축제

2025. 10.08. Wed

2025. 10.12. Sun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일원 벽골제 중심

GIMJE HORIZON FESTIVAL

전북도, 출향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고향과 함께 성장’ 투자협력의 장
새만금산업·부안농공단지 등 방문
후속투자상담 추진·맞춤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새만금과 부안 일원에서 출향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출신 기업인들이 참석해 고향의 발전 비전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전북이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수변도시, 농공단지 등 핵심 투자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발전상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전북의 산업 인프라와 성장동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출향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일정은 ▲다산 DTS 군산사업장 방문 ▲새만금 33센터·수변도시·국가

산업단지 현장 시찰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 ▲전북 발전 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참프레(부안 제2농공단지) 방문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탐방 ▲군산 근대화거리 이성당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출향기업인과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구축, 국내 최초 피지컬 AI 도입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개별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향기업인들의 고향 투자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보조금, 입지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기업지



전북도는 지난 19일과 20일 새만금과 부안 일원에서 출향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원정책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기업유치과장은 “전북 출신 기업인들이 지역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

당한 기여가 기대된다”라며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고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중점’ 물산업 육성전략 모색

24일 전북포럼서 물산업 세미나
새만금전 거점 전북형 맞춤 전략
도내 물 산업 발전 민·관·학 논의

전북도는 오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전북포럼에서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전북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전북물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물포럼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물산업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도의 생명

경제 비전과 연계한 지역 특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건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과 강동희 전북물포럼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춘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부장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 및 계획’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입주기업의 매출, 수출, 일자리 창출 등 클러스터의 5년간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유망 물기술 육성, 창업·사업화 전방위 지원, 물산업 진흥 거버넌스 강화 등 향후 2기 운영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보국 전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북 물산업의 지역특화 전략’ 발표를 통해 도내 물산업 여건과 타 시도와의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권을 거점으로 한 이차전지 세척수 회수·재활용, 스마트팜 물순환 체계 구축 등 전북형 맞춤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전북은 물산업 유치 및 R&D 연계 부족,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등 한계도 안고 있어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발표에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창

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 등 물 분야 전문가 7인이 참여해 전북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특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광동회·박영기 전북대학교 교수, 정용원광대학교 교수, 이종권 K-water 부장,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박상우 제이씨엔(주) 부사장, 김도현 익산강살리키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도정 정책과제로 연계해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익산시·한국동물용의약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글로벌 동물헬스케어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포럼 성료

국내의 전문가 200여 명 참석
4단계 클러스터사업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익산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을 비롯해 독심자수의약품㈜, ㈜중앙백신연구소, ㈜케이사이드, 한국썬벤처 등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기업 23개사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신 글로벌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신약 개발과 동물용 백신 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활발한 논

의가 이어졌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전북의 동물헬스케어 산업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4단계 프로젝트의 비전과 계획이 소개되며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전북의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산학관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미래차산업 핵심…특장차 산업 박람회 ‘주목’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자율주행·첨단 모빌리티 등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기반으로 설계·제작·검사·인증·연구개발·인력양성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널리 알리고, 미래 기술 방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이후 ▲특장차 정책세미나 ▲수출상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산업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져 기업 간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전시장에는 특장차, 자율주행차, 특장 농기계, 첨단 모빌리티 기술 혁신 제품 등이 대거 출품돼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

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고소작업차 탑승, 전기 굴삭기 조종, 드론 제작·조종, 어린이 특수자동차 그림그

리기 대회, 자동차·특장차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됐다. 김제 청년축제와도 연계해 청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치러지며, 푸드코트·기념품 증정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도는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원, 327,903㎡)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원, 336,322㎡)를 추가 조성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원)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해 생산부터 인증·튜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윤준병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대표 발의

‘주변지역’ 기준 5km→10km 확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 공존 최소한의 장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여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그 범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윤준병 의원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

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설치 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곧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는 5km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주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총력 대응

전주권 광역교통사업계획(안) 국토부 광역교통위원회 제출

전주시가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국가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익산·군산·김제 등 관계 시·군, 국토연구원, 전주 시정연구원과 협력해 마련한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이 최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자체 재원에만 의존해야 했던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최대 70%의 국

비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대광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 계획에는 △전주 중심 방사형 광역도로망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총연장 69km) △전주~새만금을 잇는 광역철도(76km, 9개 정차역)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터 2곳 조성 등 15개 핵심사업이 담겼다.

먼저 광역도로 사업 경우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전주 도심과 외곽,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 간선축 10개 노선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주 효자~완주 혁신도시 도로 신설 사업은 전주와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결하는 것으로, 시는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 건의와 병행해 국비 확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 효자~이서 도로 확장

(몽주팔쥬로) △전주 반월~익산 용제 도로 확장 사업 등이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에 담겼다.

시는 이러한 광역도로 확장·신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경우 전주와 인접 시·군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전주권 광역 생활권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광역철도의 경우 전주역에서 출발해 완주 삼례~익산~군산~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동산·삼례·동익산·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역 등 9개 정차역(총 76km)을 운행하게 된다.

시는 철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선로를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을 1단계로 먼저 추진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2단계로 새만금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권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권에서 전주, 익산, 군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새만금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권이 그간 국가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어 온 만큼 중앙부처에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건의하겠다”며 “아울러 지방비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광역교통망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시행

임실 기림초 속도 50Kmh 상향

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에 무단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이로써 시간제속도제한 구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전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한속도 30km/h로 운영하는 구간으로, 교통 불편 민원이 높은 구간이다.

이에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

/정소민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기간 청소종합대책 가동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청소상황실 가동처리반 운영

전주시가 쾌적한 도심 환경 유지를 위해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

지를 ‘추석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치된 취약지의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한다.

이어 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생활 쓰레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동시에 시는 직영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4일, 7~9일 등 5일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하고, 대형구역의 경우 10월 3~4일, 7~8일 등 4일간 생

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해 연휴 기간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및 각종 청소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영구역(6일)과 대형구역(6일, 9일)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알려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유동 인구와 방문객이 많은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

로 정하고, 연휴 기간 및 쓰레기 수거 휴무일에도 가로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추석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 확대

상업용 광고까지 시범운영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을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완산구 통일광장 사거리에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설치해 공공광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또 지난 6월 덕진구 화개네거리에 1기의 게시대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새롭게 설치된 LED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공광고에 이어 상업용 광고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광고뿐

만 아니라, 전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시범운영 확대와 맞춰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 광고 신청부터 추천·배정·송출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줄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에게 부담 없는 광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헌·이성국 의원 조례안 각각 가결

전주시의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 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주시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 실현 여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입법평가 대상 △계획 수립과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김동헌 의원은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자치입법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지원 △상담소의 업무 및 보호시설의 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국 의원은 “여성폭력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저출산 고령화 대비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전주시는 저출산·고령사회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민간위원 10명을 채워촉하고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어진 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청년·일자리 △주거도시 △인식개선 △외국인 등 6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2025년 상반기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상황’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정책제안 공모전 심사와 신규시책 제안·발굴을 위해 토론회를 펼쳤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현실



전주시는 저출산·고령사회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정책 제안공모전에 접수된 102건의 제안 중 1차 부서 서류검토를 통과한 10건의 최종제안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는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계속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최종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동욱 부시장은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채택되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5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전북 공공보건의료 성과 공유

‘전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025년 전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성과를 공유했다.

심포지엄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봄통합과 책임의료기관의 연결’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도내 협력모델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이 공동 주관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60여명이 참

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동향(유원섭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국립중앙의료원)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정책 대응 방향(변재관 위원장) △전주시 돌봄통합 추진 사례(권근상 교수, 전북의대) △도내 권역별 퇴원환자 연계사업 현황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의를 통해 퇴원환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퇴원환자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이송지원협력사업 △감염및환자안전관리사업 △재활의료 지속관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Dance Dance Dance’ 공연

오는 25일~26일 덕진예술회관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철)이 클래식을 넘어 대중적 리듬과 무대 퍼포먼스로 관객을 만나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매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

관에서 특별공연인 ‘Dance Dance Dance’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김철과 부지휘자 이영수의 지휘 아래, 건반 강우현·이미르, 타악기 정훈, 베이스기타 정송이, 드럼 장찬양, 색소폰 김병열 등으로 구성된 밴드가 합류해 색다른 무대를 펼친다. 여기에 라틴 전문 댄스팀 ‘트렌디댄스’가



/정혜민 기자

전북조달청-여성경제인협회, 공공조달 방안 모색

여성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 지원 조달청과 협력 강화

전북지방조달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공공조달 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과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여성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등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여성기업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 시장 참여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이 공유됐다.

더불어 조달청과 여성기업 간 소통과 협력 강화의 장이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정

책과 제도 변화 △나라장터 활용방안 △조달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방안 논의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입찰 과정에서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이다.

김형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여성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혁신의 중요한 주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정미 회장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활용해 여성기업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성장 지원 위한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여성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기업 공공조달



전북지방조달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공공조달 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확이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여성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 '전북쌀 소비촉진'

농심전심운동 전개
건강한 식문화 정착 행사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지난 19일 부안에서 전북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농심전심운동 전개와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이 주관했다.

행사 청춘버스 부스에서는 농협중앙회후원을 받아 고향주부모임회원들은 직접 만든 식혜, 인절미, 쌀가루 구운과자 등을 백산면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백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숙인절미 만들기 체험과 농기구체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리 회장은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함께 해준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북쌀 소비를 위해 전북농협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이 육성하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는 농협중앙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찾아가는 청춘버스' 농촌 복지 앞장

대학·기관 재능기부 농업인 복지증진 도모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2025년 제2호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를 운영하며 농촌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농협만의 특색사업인 청춘버스는 관내 대학교와 기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청춘버스에는 기전대와 비전대, 전북대, 전주대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해 인생사진 촬영 및 인화, 피부·네일·헤어 미용서비스, 허브 화분만들기, 간식나눔, 벽화 그리기 등 대학생들의 밝은 에너지로 재능기부가 펼쳐졌다.

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원장 강경석),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박영관), NH도농상생운동본부,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감미자)와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농협생명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 농협손해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도 함께하며 방송촬영지원, 노후화된 차단기와 전 등 교체 및 의료키트 지원, 뇌파맥파스트레스검사, 갑갑이, 찬찬찬 중식지원, 사람의 집고치기 등을 통해 청춘버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아울러 백산초 학생들과 우리쌀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침밥 먹기 일환으로 마련된 쌀 문화 체험장에서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 회원들과 함께 농기구체험 및 숙인절미 만들기를 하며 우리쌀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땀방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 운영은 지난 19일 부안군 백산면 입방마을과 백산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원철 조합장은 "청춘버스를 통해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더 행복



전북농협과 부안농협은 2025년 제2호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를 운영하며 농촌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도·복지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항상 바쁜 학사일정에도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준 대학교 및 기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북농협은 지속적인 농심전심운

동을 전개해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지난 3년간 청춘버스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북내 14개 시군에서 지역형 청춘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중장년 커리어 ON! 직무 콘서트' 성료

경력전환·재취업 해법 제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소장 이명숙)는 지난 19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중장년을 신나게! 중장년 커리어 ON! 적합 직무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중장년고용강조주간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역 식품산업 현황 및 기업에 대한 이해·적합 직무 소개와 함께 경력전환에 성공한 중장년 사례가 발표됐다.

더불어 이력서 사전촬영,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제공되며 중장년들을 응원했다.

최지호 씨는 전직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 HACCP팀장 과정 교육 수료 후 코아바이오에서 HACCP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례발표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명숙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소장은 "중장년내일센터서는 새로게 도전하는 중장년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진신포, 취약계층 위한 생필품 전달

김현정 전주상진신포 이사장은 지난 19일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미숙)에 200만원 상당의 어부바박스를 기탁했다.

전주상진신포 어부바박스 전달은 지역 가정들의 생활비 부담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을 다짐하며,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부바박스'를 기탁했다.

어부바박스에는 밀가루, 설탕, 키친타올 등 생필품이 포함됐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전주상진신포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중앙동 일대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생활고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이사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주상진신포는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9개 수출 멘토사·15개 멘티사 매칭

선배기업 노하우 등 멘토링 후배기업들 수출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 선배기업(이하 멘토사)과 후배기업(이하 멘티사)간 상견례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멘토링 추진은 멘토사들의 수출 관련 많은 지원사업·정보 등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멘티사와 공유하며, 수출에 대한 막막함 해결 및 네트워킹 형성 등을 통해 멘티사들의 수출 촉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북중기청은 중진공 전북본부, 전북TP 및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글로벌강소기업 등 멘토링에 참여 멘토·멘티사 발굴

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전북중기청은 발굴된 기업들 중 업종 및 제품 등을 고려해 9개 멘토사와 15개 멘티사를 매칭했다.

이번 상견례 설명회는 먼저 매칭된 멘토·멘티사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멘토·멘티사는 주제 및 형식에 관계없이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멘토링을 추진했다.

아울러 멘토링 애로사항 해결 및 추가적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들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말 멘토링에 대한 성과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수출 확대를 위해 고군분투 중에도 멘티사를 위해 멘토사로 참여해 준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멘토사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 선배기업과 후배기업간 상견례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경험과 노하우 등이 멘티사들에게 수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 발판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계기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농안법 개정 추진계획 공유·세부 운영 방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농산물 안정적인

공급 위한 수급안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오갔다.

회의를 통해 무 공공량 조절, 양과·마늘 추석 성수기 정부 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직공급,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더불어 농산물 생산 안정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 방안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의 구체화 방안 등이 모색됐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주요 노지채소류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며, 담당 부처인 기상청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

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을 넓히고,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중구 식량정책실장은 "전국민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이 함께 협력해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학폭 피해율, 전국 평균 웃돌아…대책 필요

초등 저연령화 심화 학교장 종결제 비율 급감 교육 사법화 가속화 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 학교폭력 피해율이 3.1%로, 전국 평균 웃돌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10만 177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3183명(3.1%)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는 전국 평균 2.5%를 0.6%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전북 지역 학교폭력 상황이 전국보다 심각한 상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전북 6.3%로 전국 5.0%보다 1.3%포인트나 높아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3%)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17.2%), 신체폭행(14.1%), 사이버폭력(8.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29%), 점심시간(21.4%), 하교이

후 시간(11.2%) 등 교사의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간대에 집중됐다.

전북교총은 또한 “최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전북의 피해 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제적 위기이자, 전북교육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 사회

정서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전북 학생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 없는 전북교육을 위해 현장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성민 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위원장 “악성 민원 해결하라”

전북교육청서 농성 돌입
대응 전담 기구 구성 등 주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전

북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농성에 앞서 이날 전 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한 초등학교가 악성 민원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이어 “악성 민원인 앞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당장 현장으로 달려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학교 악성 민원을 방지할 종합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대응 전담 기구 구성 등을 주문했다.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 워크숍

‘더 널리 문화누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익산 왕궁포레스트에서 도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 워크숍 ‘더 널리 문화

누리’를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더 널리 문화누리’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14개 시·군 지자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인 익산 왕궁 포레스트에서 열렸다.

지역 사업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현황 공유, 민원응대 등 역량 강화 교육,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체험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우수기관 시상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업은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년도 발급·이용실적과 신규수혜자 발굴, 전액사용자 비율 등을 기반으로 평가해 전북자치도 지역의 우수 지자체 2곳과 주민센터

3곳을 선정하고 시상과 함께 담당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수 지자체는 △무주 △완주가, 우수 주민센터는 △부량면(김제시) △순창읍(순창군), 상전면(진안군)이 선정됐다.

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문화누리카드)은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재단은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 촉진 기획 프로그램과 실무자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국내여행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상시 기동감찰’ 공직기강 확실히 잡는다

연중 상시 운영 내달 17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예방을 위해 ‘상시 기동감찰’을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상시 기동감찰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현장 밀착형 감찰체계로, 도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 제보시스템, 언론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찰반을 현장에 수시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감찰 대상은 분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교직원 모두를 포함한다.

중점 감찰사항은 △북부 위반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보안관리 미흡△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교육 현장 전반을 포괄하며, 야간·주말·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까지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며, 우월적 지위 남용·성비위·금전 비위 등 중대 사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주요 적발 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17일까지는 ‘추석 대비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병행, 명절을 틈탄 금품 수수·부정청탁 등 비위 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어학당 설립 ‘첫발’

14개 시군 가족센터협회 협약 지역 외국인 교육 등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전북대 국제처(처장 조화림)는 지난 18일 고창군가족센터에서 전북가족센터협회와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화림 국제처장을 비롯해 김태연 언어교육부처장, 장덕상 전북가족센터협회장, 14개 시·군 가족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인 전북가족센터협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가족센터를 대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역정주 외국인 지원과 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성장, 다양성의 힘’이라는 기조 아래,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지역 소멸을 막고 외국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한국어학당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 온 한국어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이가 남원 글로컬캠퍼스 내 한국어학당 설립 및 운영에도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조화림 전북대 국제처장은 “글로컬캠퍼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4개 시·군 가족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는 이제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글로컬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전북대학교가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을 지향하는 글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수칙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세탁기 사용 회수
줄이기

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이기

T.V 시청 시간
줄이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

절수설비 기기
설치하기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군산시, 24일~10월 1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합 작품전시회

군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에서 '2025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합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손끝으로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군산시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나포길벗공동체, 구세군군산복합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각 기관 학습자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예술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 아트플랫폼 ‘달팽이 공방’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30일에는 2025 군산시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가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 로비에서 열리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샘고을정다운 상권 활성화협의회 사업 추진 논의

정읍시가 지난 18일 정읍시상공관활성화협의회를 열고 샘고을정다운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장 이한익) 3차년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샘고을정다운 상권활성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0여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침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자생적 경영 관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즐길거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을 매력적인 방문지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년도 시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상권 이용 환경 개선, 각종 행사 개최, 상권과 유적지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향후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원도심 상권을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출신 송안훈·문정현 정기연주회 무대 올라 ‘호음’

군산예술의전당은 지난 18일 저녁,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연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으로 시작해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비제의 ‘카르멘’ 서곡은 강렬한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전개로 객석을 압도하며 공연자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그는 스페인의 정취와 낭만을 담은 ‘그라나다’를 부르며 고향 무대에서의 특별한 감회를 전했고, 이어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열창해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다. 문정현의 무대는 단순한 성악 독창을 넘어,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한 예술인이 고향에 바치는 감사와 헌신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절망과 고뇌, 환희와 승리를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을 그려냈다.

송안훈 지휘자의 섬세하면서도 깊이있는 해석과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탄탄한 앙상블이 어우러져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군산예술의전당 심종완 과장은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과 군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기·기획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790억 규모 재정 추석 전 집행

농민수당 84억원 포함 서민 생활 안정 경기 회복 마중물 기대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790억 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신속 집행한다.

시는 공사·용역·물품 등 시설비 164억 원, 사회복지 분야 370억 원, 기타 경상적 경비 172억 원, 농민 공익수당 84억 원을 포함한 각종 대금을 10월 초 추석 전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대기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농민 공익수당’ 약 84억 원도 추석 전인 오늘부터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급은 2차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추진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3월부터 6월까지 신청한 농업인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1만 7,000여 명이다.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농업인당 30만 원이 각각 지급되

며, 다이로움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농민 공익수당은 병원이나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민생 예산 집행을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 행정혁신 인정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지역주치의제’가 전국 모델로 인정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KGET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읍시는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품었다.

이 상은 지역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낸 기초지자체를 엄격한 심사로 선정해 우수 행정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취지로 제정됐다.

시상식은 이태일리가 주최했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의사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지역경제협력연구원이 후원했다. 시는 초고령사회라는 지역 현실과 의료 공백 심화를 직시하고, 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 지역주치의제’를 도입했다.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고령 시민을 관리하는 구조를 세워 접근성을 높였고, 맞춤형 건강 상담과 연계 지원으로 시민 건강권을 지켰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체계를 설계한 점이 혁신성, 공공성, 확산 가능성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 사업의 성과를 넘어 민선8기 정읍시정이 추진한 적극행정과 혁신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읍형 모델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응의 정책 대안으로 전국 확산이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참여와 공직자들의 묵묵한 헌신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으로 ‘100년 정읍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본격화

만경강 수변도시 발판 새만금 배후도시로 조성

익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라는 공간을 내세워 유치활동에 적극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재반영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혁신도시 확장을 위한 유치전략을 전면 가동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수변도시는 2030년 이후를 목표로 새만금과 연계되는 배후도시이자, 공공기관·연구시설·의료기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 도시로 조성된다.

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장기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고려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실제 수변도시 예정지 내에는 전북권 국가 산재병원 건립과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산업기능을 포함한 복합도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전북도 전체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2 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확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바 있다.

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금융 분야의 55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이는 익산시가 중점 유치 대상 20개 기관을 선정한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처럼 익산시는 도정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기반과 여건을 갖

춘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 기반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상기관과의 유기적 소통 및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익산시가 호남권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만경강 수변도시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서 우수 농특산물 판매

올해 사전주문 작년보다 30%↑ 6천여만 원 달성

군산시가 23일 자매도시 김천시를 방문, 군산시의 우수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김천시와 1998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2009년부터는 양 도시의 우호 증진과 함께 지역의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17번째 진행해오고 있다.

먼저 김천시는 지난 7월 군산시청 광장에서 포도·자두·복숭아 등 맛과 품질이 우수한 과일 판매행사를 진행해 약 6,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어 군산시가 오는 23일 김천시를 방문해 군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



산물을 김천시민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김천시 방문 농산물 교류 판매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시의회·농협·수협·농업인단체 등 60여 명이 김천시를 방문해 지난 2년 동안

호우 등 재해로 진행하지 못했던 현장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생의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며 양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장, 시민과 마주앉아 ‘타운홀미팅’ 개최

25일 시청서 열려

정현율 익산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는 ‘진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익산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에서는 사전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최근 관심이 높은 주요 정

책들을 선정해 정현율 익산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정책 토크’가 열린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배경과 추진 과정 등을 시장이 진솔하게 풀어내는 시간이다.

2부는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갈 예정이다.

정현율 시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들께서 시청 전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발굴 성과 공유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발굴 조사에서 금제 장신구와 철기,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며 백제사의 중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됐다.

정읍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지난 18~19일 최종 자료회의를 열고 조사 성과를 공유했다.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에 분포한 270여 기의 고분 중 대표적인 황혈식 석실분 56기를 포함해 2018년 시작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의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2022년부터 연차적 발굴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9기의 백제 고분이 확인됐다.

고분 내부에서는 금제 장신구와 금동 이식, 청동팔찌, 청동뒤꽂이, 구슬 등 장

신구류와 철도자·관정 등 철기류, 광구 장경호·병형토기·삼족토기·대부안·개배 등 토기류가 다수 출토됐다.

특히 금제 장신구는 백제 지방 지배 세력의 성격과 교류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백제 중앙세력이 웅진기 초기에 중방 고사부리성 일대까지 지배력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이학수 시장은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백제 중앙문화권의 성격을 밝히는 핵심 유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이어가 정읍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전국 모범 사례로

성과대회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익산시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 사업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익산시 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12일에 열린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 ‘대상’에 이은 수상으로, 익산시가 한의 난임부부 지원과 건강

증진 사업 모두 전국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속 수상으로 익산시 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운영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과 성과 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한의약 기반 사업들이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GO! 군산 섬해진미’ 25일까지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GO! 군산 섬해진미’ 2회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GO! 군산 섬해진미’는 올해 초 전북도가 주관한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 7월 1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섬과 미식을 함께 즐기는 체험형 미식관광이라는 점이 부각된 ‘GO! 군산 섬해진미’는 모집 개시 이틀 만에 정원의 5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됐고,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2회차는 그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2차 여행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군산군도 관리도 일원에서 열린다. 관리도는 폭포바위, 삼선바위, 쇠코바위 등 독특한 자연경관들로 유명하며,

고군산군도의 섬들 중에서 수심이 가장 깊어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좋다.

특히 배낭여행 성지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관리도 캠핑장을 주무대로 삼아 백패킹과 미식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여행자들을 위해 △섬 주민과 함께하는 고동잡기·통발 설치 어촌체험 △제철 해산물과 관리도 식재료를 활용한 셰프 챌린지 등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

이번 투어에는 총 30명을 사전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 계정(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있는 ‘GO! 군산 섬해진미’ 안내 게시글 QR 부호(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완주군, 화산면 가축분뇨 친환경 연료로

군·주민·축협 상생 협력 본격화 388억 투입 연료화시설 설치 협약 마을도로 등 지원 병행하기로

완주군이 화산면 가축분뇨 해결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화산면 운곡리 수실·돈의·부현마을 주민,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지속발전협의회와 함께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주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규성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마을 이장과 주민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상생과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화산면 일대는 그동안 축산농가의 가

축분뇨 처리 지연으로 악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4년 3월 전북특자도 컨소시엄 규제특례 사업으로 선정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주관의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하루 120톤의 우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화산면 운곡리 421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18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 1년간 10여 차례의 지속발전협의회를 열고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부지 선정에서부터 악취 저감 대책과 지원 방안까지 꼼꼼하게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에는 그동안의 협의 결과와 담겼다.

군은 수실·돈의·부현마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포장 등 마을 도로 개선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 발전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대기방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퇴비 무료 지원과 마을 발전기금 조성 등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설 준공 이후에도 지속발전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군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간 갈등을 완화하게 됐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본격화

주민이 생활 법규 직접 제정 온라인·리플릿 등 다각 홍보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군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 1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군민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청구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추석 앞두고 예취기 무상 수리 지원

순창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민과 성묘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취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오늘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비롯해 북흥과 쌍치 권역 임대사업소 2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무상 수리는 추석을 앞두고 예취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리 대상은 지역민과 성묘객이 사용하는 예취기이며,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이 6만 원 이하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예취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무상 수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산내면 ‘지리산권 생활체육 구심점’ 첫 문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다목적 체육관·당구장 등 갖춰

산내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 속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가 첫 문을 연다.

남원시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하여 지난 19일 오전 11시 산내면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들 300여명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개관식은 터울림 행사와 테이프 커팅으로 공식적인 산내면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알렸으며, 2부 행사로 산내면 경로잔치를 같이 진행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1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총 46억원(국비 10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시비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남원시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해 지난 19일 산내면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들 300여명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남원시>

위치는 산내면 장항리 209번지 일원이며, 지상 1층, 연면적 990㎡ 규모로 조성된 국민체육센터는 배구와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이 가능한 15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당구장, 사위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지리산권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즐거운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도약할 수 있는 산내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유치 염원 ‘범군민 포럼’성황

군민·전문가 1500명 의지 다져 시범선정 사전국농촌모델기대

순창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군민·지역대표·행정 모두 한 뜻을 모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미래발전협의회(회장 서한복)는 지난 19일 일품공원 야외광장에서 농촌기본소득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해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포럼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연천군 사례발표, 종합토론, 농촌기본소득 유치 촉구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향, 그리고 순창군이 준비해 온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순창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순창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전국 농촌의 모델이자 국가적 정책 실험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실현을

위해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군민이 참여하는 실행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만큼, 이번 공모 선정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휴일 어린이집 1호점’ 이서면서 운영 개시

일요일·공휴일 보육 공백 최소화 군 “지정 확대에 나갈 것”

완주군이 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휴일 보육어린이집 1호점'을 이서면 사랑뜰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휴일 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와 주말근무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어린이집 운영체제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유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교사 1명당 평균 5명의 아동을 돌보며 장애아 및 0세 포함 시 보육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군은 지속적으로 휴일 보육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맞벌이 부부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휴일보육 서비스는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실용교육 4개 과정 운영

바리스타·목공·용접 등 생활기술 농기계 기초·AI마케팅 실습 위주

순창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2025년 순창군 귀농귀촌 실용교육'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자격증(9월 11일~10월 13일) △농촌 생활기술 실습(9월 15일~17일) △농기계 안전 및 기초 실습(9월 18일~19일) △AI 농촌 마케팅(9월 30일~10월 1일) 등이다.

첫 문을 연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4주 동안 커피조리학 이론, 커피머신 관리, 다양한 음료 실습을 통해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농촌 생활기술 실습은 목공·전기·용접을 아우르며, 목공 이론과 실습, 전기 안전 현장 견학, 전기용접 기초 등 농촌 정착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농기계 안전 및 기초 실습에서는 예초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굴착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며, 안전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AI 농촌 마케팅 교육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작성, 이미지 제작, SNS 홍보 전략, 농산물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케팅 노하우를 실습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골든벨’ 올려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

지난 18일 전 직원 대상 개최 핵심 법령 중시 퀴즈 풀이 진행

남원시는 지난 18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청탁금지법 제19조,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의 청렴 의식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렴 골든벨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객관식·주관식·OX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퀴즈 풀이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1등 최우수상(50만원), 2등 우수상(30만원), 3등 장려상(20만원)이 수여됐다. 직원들은 퀴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청렴 제도를 학습할 수 있었고, 서로 소통하며 즐겁게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유행 이달까지 지속될 듯”

10주 연속 입원환자 지속세 예방접종 오는 10월 15일부터

남원시보건소는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10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9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운영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25년 36주 차(8.31~9.6.)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으며,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6%로 가장 많았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관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의 파스토티드 재고 확보 실태 및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신속한 처방·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65세 이하 만역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소방서, 대아저수지서 수난구조훈련 진행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아저수지에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마침 많은 비가 내려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한 환경 속에서 진행돼 대원들에게 한층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마스크 물빼기, 호흡기 교환 등 기본스킬과 중성부력 유지 훈련을 통한 수중 적응 △수난용 마네킹을 활용한 원형 탐색 및 흐린 물 환경을 고려한 저시정 수중 탐색훈련 △모트 트레일러를 이용한 현장 접근 절차, 고무보트 및 선외기 운용, 저수지 주요지점 수심 확인 등 고무보트 운용훈련이 실시됐다.

완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대응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수난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구조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장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김제국제후원회, 취약계층에 샤인머스켓 50박스 기부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김제국제후원회(회장 김성욱)가 지난 18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샤인머스켓 5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후원된 샤인머스켓은 광활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욱 김제국제후원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순미 광활면장은 “이웃사랑을 직접 실현해 주시는 김제국제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나누는 사람들, ‘전주함께미(米)소(笑)’ 나눔 동참

(사)나누는 사람들(대표이사 이순태)가 지역사회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께미(米)소(笑)’에 동참했다.

(사)나누는 사람들은 19일 건지산 오송제 일대에서 9개 산하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 건강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사)나누는 사람들은 전주시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께미(米)소(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나누는 사람들 임직원들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은 현금 3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 7개 노인복지관에서 모금된 기부금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장수 장애인탁구선수단, ‘도쿄 퓨처대회’서 은메달 쾌거

백영복 선수 은메달 획득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도쿄 퓨처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백영복 선수는 남자 단식과 혼합복식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장수군의 위상을 높였다.

‘도쿄 퓨처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과 일본탁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권위 있는 국제대

회로, 세계 각국의 선수 17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장수군장애인체육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쌓아온 훈련 지원과 응원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메달 획득은 장애인 선수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주며 지역 체육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정천면, 수물민 망향제 거행

용담댐 수물민 애환 달래

진안군 정천면 어촌계 망향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정전체련공원에서 수물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천면 수물민 위로 망향제를 개최했다.

이번 망향제는 용담댐 수물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면민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 정천면은 용담댐이 완공되면서 약 9.78km²의 면적이 수몰됐고, 이로 인해 17개 마을 499세대 738명이 마을을 떠나게 되는 아픔

을 겪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장한수 추진위원장은 “수물민 지명 20여 년이 넘었지만, 살던 고향산천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는 분이 많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애환을 달래면서도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민 정천면장은 “정천을 그리워하는 수물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이디로시스등2개기업,남원시에장학금전달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제이디로시스(대표 이상욱), (사)위드인사람과함께(대표 김대호)는 19일 남원시장실에서 최경식 남원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드림 장학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인 (사)위드인사람과함께와 남원시가 협력하여 지역 내 초·중고에 재

학 중인 취약계층 아동 5명을 선정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은 학생들의 교육 및 자기개발비로 사용된다.

(주)제이디로시스 이상욱 대표는 “이번 후원이 아이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읍지사협, 어르신 500명에 짜장면 나눔

완주군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상영, 임동빈)는 19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2025년 사랑의 짜장면 나눔 및 효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도 참석해 어르신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에서는 삼례지역의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고고

장구, 생활제초, 민요 등 공연과 노래자랑 등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식사와 함께 어르신들께 공경의 마음을 전달했다.

오상영 공동위원장은 “500인분의 짜장면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면서 나눔이 기쁨을 느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행복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농협발전상생협의회, 농심천심 운동 추진 결의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19일 관내 5개 농축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농협발전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군지부 ‘텃밭 정원’ 앞에서 농협이 추진하는 범국민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추진을 결의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살리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내달 1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및 순창 농축산물 홍보, 쌀 소비 촉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정원 전파를 비롯한 ‘농심천심 운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종철 지부장은 “농심천심 운동으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군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관내 농축협과 함께 지역사회에 ‘농심천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주시원시니어클럽,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전주시원시니어클럽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전주시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원시니어클럽(관장 김경옥)은 19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위원장,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및 전라북도 내 시니어클럽 관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약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경옥 전주시원시니어클럽 관장은 “2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10년 뒤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2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타면 착, 안전도착

올바른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차 타면 꼭 지켜야 할 안전띠 안전수칙

택시 탑승시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도

안전벨트 필수 착용해야 해요!



낮은 속도에서도

뒷좌석에도, 안전띠 꼭 착용 해 주세요!



〈一事一言〉



김건희가 살았던 ‘타인의 삶’(1)

송요훈

언론인

김명신은 김명신으로 사는 게 싫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돌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무대 위의 소품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배우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얼굴을 바꾸고 학력과 경력을 세탁하여 이쁘게 색칠하고 포장을 다시 하였다. 오직 돋보이고 싶어서. 김명신이 아닌 타인의 삶을 꿈꾼 죄, 그게 죄라면 죄였다.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동독이 무대이고 사찰기관에 근무하는 비밀경찰이 반체제 인사인 유명한 극작가를 사찰하다 그의 삶에 감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주인공인 비밀경찰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원하는 진술을 받아 내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마다하지 않는 냉혹한 인간인데, 극작가의 집을 도청하며 삶의 내밀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차츰 감화되어 위기에 처한 극작가를 몰래 돕는다. 그 덕분에 뒤편에 빠질 뻔한 극작가는 목숨을 구하지만, 주인공인 비밀경찰은 극작가를 도운 게 발각되어 하층계급으로 추락한다. 하지만 인간성을 되찾은 그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묻어난다. 그래서 해피 엔딩이다.

김건희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영화 ‘타인의 삶’을 꺼낸 건, 김건희와 관련한 뉴스를 볼 때마다 영화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김건희의 삶과 영화 속 비밀경찰의 삶은 완전 판판이다. 하지만, 김건희는 김명신이 아닌 타인의 삶을 동경했고 영화 속의 비밀

경찰은 타인의 삶에 감화되었다는 점에서 ‘타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영화 속의 비밀경찰은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 해피 엔딩이지만, 김건희는 성형한 얼굴로 가식의 연기를 하며 김명신 아닌 타인의 삶을 흉내 내다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름도 얼굴도 바꾼 김건희는 셀럽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검사처럼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겼던 것 같다. 그러다 검사 윤석열을 만나 결혼을 하여 검사 부인이 되고 검찰총장 부인이 되었다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초고속 신분 상승을 누렸으니 꽤 순간이 짜릿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경력이 드러나 위기를 맞긴 했으나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어색한 연기가 눈에 뻔히 보이는 기자회견에도, 시선 돌리기와 물타기로 여론 조작에 나선 ‘진윤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유아무야 넘길 수 있었다.

그랬던 김건희에게선 늘 ‘타인’이 겹쳐 보였다. 허위 경력을 사과하던 기자회견에선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겹쳐 보였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던 김건희에게선 남자 손님이 무슨 말을 하든 적절 받아넘기는 능란한 화술의 룠싸롱 마담이 겹쳐 보였고, 최재영 목사에게서 디올백 받던 김건희에게선 허영과 권력에 취한 오만한 사모님이 보였다.

‘영부인’ 김건희의 변신에는 거

침이 없었다. 순천만 정원에서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리고 요염하게 찍은 사진에선 스물 갓 넘은 모델이 겹쳐 보였고,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에선 인기에 존경까지 받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겹쳐 보였고, 영국을 방문하여 왕실 마차를 탄 김건희에게선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가 겹쳐 보였으며, 느닷없이 한강 다리에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현지 지도를 하던 김건희에게선 북녘의 최고 존엄이 겹쳐 보였다. 그 모두가 김건희가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던 ‘타인’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9월, 〈오마이뉴스〉에는 ‘고등학생이 손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통령 윤석열에게선 잘못된 게 전부이지만,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업적이 있을 것이니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반어법의 기사였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의 수준이 ‘저 모양’이란 걸 몸소 보여준 거라며, 서열화한 학벌 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니 서울법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고,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이 알팍한 법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정적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범주라지의 민낯’을 보게 되었으니 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

지금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건, 기성세대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오른 최고 엘리트라면 더 따져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라는 것이 그 고등학생들의 진단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통찰에선 고등학생들의 예리한 통찰에 박장대소하였으나 민주주의의 취약함과 어른들의 ‘물지마 투표’를 간파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선 몹시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꾼 김건희는 ‘타인의 삶’을 살기만 한 건 아니었다. V0 김건희는 V1 윤석열을 조종하여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타인’들의 행태를 가감 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내어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청년 떠나는 전북, 전시성 행정으로 못 막는다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은 매년 평균 8천명씩 고향을 떠났다. 그 결과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절반 이상은 이미 ‘고위험 단계’에 놓였다. 청년의 이탈은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와 행정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점이다. 청년이 해마다 고향을 떠나는데도 근본 대책은 뒷전이었고 뒤늦게 전시성 대책을 내놓고는 ‘청년 진화’라는 수상 실적만 내세우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다.

전북도가 내세운 정책은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른다고 강조한다. 면접수당, 직무체험, 임대보증금 지원, 활력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대부분 단기적이거나 보조 성격일 뿐,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청년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일자리 없는 고향에서 뒷심만원 지원금 받는다고 남지 않는다. 정치권과 행정이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다. 지금의 청년 유출 사태다.

또한 청년 의견을 반영한다며 청년정책협의체나 청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 정작 청년들은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켰다는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 권한과 예산 결정권은 여전히 관료와 정치권에 머물러 있다. 보여주기식 청년 참여는 오히려 청년들의 불신만 키운다.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 회피다.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청년을 위한 전북’을 외쳐왔지만 청년 유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청년정책을 발표할 때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정책 실행과 성과는 뒷전이다. 전북도가 최근 수상한 ‘청년 진화현정대상’도 청년들의 실제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외부 평가로 치장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청년들이 “전북에 남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청년정책은 화려한 계획이나 단발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이 떠나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 정치와 행정은 그동안 책임을 미뤘었고 그 대가가 지역 소멸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라도 도정과 정치권은 청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산업과 교육, 문화, 주거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 유출은 막지 못한다.

청년 없는 전북은 존재할 수 없다. 전시성 수상 실적이나 단발성 지원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내놓는 일이다. 전북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행정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문화재열전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당우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석포리)

▲오늘의시

너의 하늘을 보아 / 박노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내

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 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맛과 정성을 담은 남원 사회적경제 추석 명절 선물세트

지역 특산품 담은 1~6만원대 선물세트 50여종

폭염을 견뎌낸 들녘이 황금물결을 준 비하는 시절, 오곡백과 풍성한 추석이 다가온다. 2025년 한가위를 맞아 남원시에서 특산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지리산 자락 청정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믿을 수 있고, 지역을 살리는 상생의 가치가 담겨있어 소중한 이들에게 정성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명가의 솜씨를 그대로 담은 남원 추어탕과 김부각

남원의 대표 향토 음식 김부각은 활용도 높고, 저장성도 좋아 인기있는 선물 아이템이다. 사회적기업 (유)하이오백은 지리산 해발 500미터 청정지역에서 김부각을 생산한다. 3대째 내려온 비법으로 만든 김부각은 도톰한 찹쌀꽃과 현미유가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하여 '금'부각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조각 부각(22,000원)과 통김부각(25,000원)이 있으며, 제주산 메밀을 첨가한 메밀부각(30,000원)도 별미다.

(사회적기업 하이오백 063-636-2072)

남원김부각협동조합은 프리미엄 원재료로 만든 '한선생 김부각'을 선보

였다. 유기농 지주식김에 남원산 고구마를 발라 NON-GMO 유채유로 튀겨내고, 가마에서 직접 구운 황토소금과 천연발효조미료로 감칠맛을 더했다. 단아한 패키지에 담아낸 통김부각 세트(24,000~40,000원)는 선물용으로 베스트셀러다. 한선생 부각 혼합세트(24,000~38,000원)는 스낵으로 즐기기에 좋은 미니 김부각과 찹쌀꽃을 입혀 튀긴 황태김부각, 부드러운 생다시마 부각이 어울려 풍성한 구성이 돋보인다.

(남원김부각협동조합 063-625-7111)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미꾸리양식 특허기술을 보유한 33년 경력 수산종묘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 추어 전문기업이다. 100% 국내산 원재료로 최상급 미꾸라지와 남원산 고춧가루, 들깨, 한식 된장, 고랭지 시래기를 넣어 맛을 낸 추어탕은 레토르트 포장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남원 현지의 손맛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재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추어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지리산품은 남원추어탕'(세트 35,000원)은 미주와 호주 대륙 수출로도 인기 만점 제품이다. 간편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어탕(세트 35,000원)은 국내산 자포니카 민물장어를, 메기매운탕(세트 30,000원)은 정읍산 원물을 사용하여 흙냄새 없이 진하고 칼칼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063-

626-7722)

명절 다과상과 가족모임에 제격, 건강한 주전부리와 전통주 세트

지리산 둘레길 초입 주천면에 위치한 (유)웅치마을영농회는 직접 튀긴 곡물 튀밥에 견과류를 버무려 수제 강정과 에너지바를 만든다. 공재강정선물세트(30,000원)에는 들깨땅강정과 옥수수강정, 찰원미강정, 참깨쌀강정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꽃으로 만든 메리골드와 ABC 티백차(세트 20,000원)는 집중에 필요한 수험생,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미량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국내산 쌀에 지리산 홍시를 더해 전통 방식으로 고아낸 홍시 조정세트(25,000원~40,000원)는 꿀이나 잼 대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마을기업 웅치마을영농회 / 063-635-2157)

지리산항치마을영농조합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 100% 유기농 쌀로 수제 누룽지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신제품인 '누룽당 바사삭' 시리즈는 현미누룽지에 약과와 귀리, 보리를 황금비율로 배합하여 얇고 아삭한 쌀과자 식감을 살렸다.(28팩 49,500원) 유기농 누룽지 선물세트(25,000원)는 황치꿀에서만 생산하는 지리산 산채누룽지를 맛볼 수 있고, 발아현미조정세트(35,000원)는 쌀눈의 영양분이 살아있는 은근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지리산항치마을영농조합 010-5424-9335)

마을기업 ㈜비즈양조는 청년들이 만든 수제맥주 선물세트(15,000원/4병입)를 선보였다. 바이젠과 페일에일, 라거, 스타우트 4종으로 개성이 살아있는 풍성한 향과 묵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다. 맥주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전통소주 '화동원(2병 40,000원)'은 남원 금지 평야에서 생산한 쌀을 감미료 없이 삼양주 기법으로 720시간 숙성한 42도 명품 증류주이다.

(비즈양조 063-635-8627)

남원시가 보장하는 스타기업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남원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사회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2023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스타기업'으로 지정한다.

남원시 첫 스타기업 영예를 안은 사회적기업 (유)메밀꽃피는 향아리는 연간 1백여톤의 남원쌀을 구매하여 가공, 건강한 떡 간식을 만드는 기업이다. 모든 제품을 15일 이내 도정한 햅쌀로 만들어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다. 대표 제품은 모짜렐라 치즈 가래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포함된 '치즈몽땅떡볶이세트'와 구워먹는 치즈떡바, 퓨레(바질도 마토, 고구마, 흑임자)를 품은 달떡 시리



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제

품을 골라보한 달빛치즈세트와 남만캠핑세트, 온기가득한끼세트 등을 출시했다.

(각 세트 39,000원/ (유)메밀꽃피는향아리 063-625-9198)

전통 수제 방식으로 묵을 만드는 '지리산삼은물춘향골영농조합'은 3대째 이어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고, KBS '한국의 밥상'에 출연한 명가 기업이다. 국내산 재물이 도토리를 갈아서 뿔은맛을 우려내고 가마솥에 끓여 만들어 일반묵이 아니라 '참묵'이라 부른다. 국내 유망한 떡 간식을 만드는 기업이다. 모든 제품을 15일 이내 도정한 햅쌀로 만들어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다. 대표 제품은 모짜렐라 치즈 가래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포함된 '치즈몽땅떡볶이세트'와 구워먹는 치즈떡바, 퓨레(바질도 마토, 고구마, 흑임자)를 품은 달떡 시리

우무채로 별미세트 5종을 선보인다. (16,000원~43,000원 / 지리산삼은물춘향골영농조합/ 063-636-6111)

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영농조합은 운봉 고랭지에서 직접 참깨, 들깨를 재배하고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어 품질 좋은 깨를 구매하여 착유한다.

고소한 향이 살아있는 햇들기름과 생들기름, 들깨가루와 볶음참깨를 한 박스에 모은 프리미엄 세트(52,000원)는 명절 선물로 꾸준한 스테디셀러다.

생들기름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1회용 스틱으로 가공한 '오메가3 선물세트'(18,000원)는 바쁜 직장인과 수험생을 위한 건강 아이템으로 눈길을 끈다.

(지리산처럼영농조합 / 063-636-8788)

/남원=정하복 기자

